

3》 김영란 법과 취업계 문제



8》 백남기농민추모제



2016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이수 및 실적등록 안내

1. 서류제출기간 : 11월 1일 ~ 11월 24일
2. 사회봉사 관련 상세사항은
공식홈페이지 - [공지사항] - [일반]에서 반드시 확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몰고 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학교도 내부 구성원 대상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28일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김영란법 교직원 대상 교육 장면이다
(사진=기호웅 기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초미의 관심 교육부 늑장 '지침' ... 관련 학생 혼란

김영란법, 대학은?

권유진 기자 hahay123@khu.ac.kr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 대학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학생들의 '취업계' 즉, '조기 취업자들의 출석인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달 22일에 배포한 '정착금지법 학교용 매뉴얼'에서 조기 취업으로 강의를 출석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도 학점을 인정해주던 취업계 관행이 '학점 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해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로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이후 취업을 앞둔

학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교육부는 법 시행 이틀 전에서야 자율적인 학칙 개정을 통해 조기 취업생의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응방안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교육부가 관련 지침을 너무 늦게 하달하는 바람에 대안을 논의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들은 '자율적인 학칙 개정이라는 명목으로 교육부에서 대안 마련에 대한 책임을 대학에 모두 전가했다'며 각종 취업계 관련 대안을 만드느라 고심하고 있다.

가장 많은 대학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출석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학칙을 개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학칙에서는 기준일수 이상 결석할 경우 F학점을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질병이나 군대 등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여기에 취업계를 추가

한다는 것이다.

한편, 취업계를 예외조항으로 두는 것이 취업예정자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어 이 대안이 모든 대학에게 적용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대안, 이를테면 취업예정자의 경우 잔여 강의를 사 이버 강의 형태로 수강하게 하거나 매주 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당장 이것도 적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안들이 모두 당장의 혼란을 잠시 잡재울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 학교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다른 학교에 비해 더 복잡한 상황이다. 예전에 취업계는 이 제도로 규정

된 바가 없이 관행적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명문화된 제도 자체가 없다보니, 이번 학기 들어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인 취업예정자들의 수를 파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캠퍼스(서울캠) 학사지원과에서는 "학칙은 하루 이를만에 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조기취업과 관련되어 개정이 된다면 2017년도에나 이뤄질 것"이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학기 취업계를 써야 하는 학생들에겐 당장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학사지원과 측은 "6주 이상 결석하면 낙제가 되므로, 개강 후 6주가 지나기 전인 오는 10월 중순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 말했다.

▶3면으로 이어짐

교육실천 혁신위, '수강인원 제한 없는 신청' 제안

수강신청 대란

김성수 기자 korkeep@khu.ac.kr
김은수 기자 eunsu1031@khu.ac.kr

#. 수강신청 시작 후 30초에 한 학기의 성과가 달렸다고 해도 과연이 아니다. 누구나 수강신청 '올클'을 꿈꾸지만 달콤한 상상에 그쳐버리곤 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수강신청 제도 변경에 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올클: 'All-Clear'의 준말)

우리학교의 혁신 수강신청 제도는 수차례 변화를 거쳐 왔다. 우리 학교가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수강신청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도 2학기부터다. 이전까지는 수강신청 양식을 직접 작성해 학사지원과에 제출해왔다. 이후 학수번호 직접 입력의 불편을 해소하고 강의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9년도 1학기부터 희망과목당기 서비스가 출범한 것이다. 초기 도입된 희망과목당기 제도는 담을 수 있는 과목 수에 제한이 없어 정확한 과목별 수요 파악이

어려웠다. 이후 담을 수 있는 과목 수가 10과목으로 제한된 '예비과목 담기'가 생기면서 희망과목당기의 본인이 수강 가능한 학점 내에서만 담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서울캠퍼스 학사지원과 측은 희망과목당기를 통해 수강 가능 인원 증설이 이루어지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의 희망과목당기는 장바구니 역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다"고 9월 2일 교육실천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바 있다.

학생들은 수강신청 강의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희망과목당기로 수강신청이 편리함을 더한 것은 사실이지

만 근본적으로 수강 가능 인원이 충원되지 않는 이상 치열한 경쟁은 예전하다는 것이다.

외국어대학 학생회 김주와(중국어학 2015) 부회장 역시 "희망과목 담기를 통해 수강 가능 인원 증설이 이루어지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의 희망과목당기는 장바구니 역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다"고 9월 2일 교육실천위원회 회의에서 밝힌 바 있다.

▶5면으로 이어짐

알림

사령

〈명〉

기호웅 의류디자인학(2012) 국제 뉴스총괄팀장
이정민 스피어인어학(2014) 국제 영상총괄팀장
민성원 국제학(2014) 서울 영상총괄팀장

〈명〉 정기자

- ▲고동근 골프산업학과(2013)
- ▲김성수 컴퓨터공학과(2016)
- ▲김은수 프랑스어학과(2015)
- ▲김채윤 연극영화학과(2016)
- ▲이성은 응용물리학과(2015)
- ▲홍지수 도예학과(2015)
- ▲정현진 영어학과(2015)
- ▲임창민 언론정보학과(2014)
- ▲송현주 언론정보학과(2016)
- ▲박수현 언론정보학과(2015)
- ▲이예린 경영학과(2015)
- ▲권유진 사회학과(2014)
- ▲김태희 컴퓨터공학과(2015)
- ▲설지연 프랑스어학과(2015)
- ▲김태윤 일본어학과(2015)
- ▲경소정 한방재료공학과(2015)
- ▲김가영 도예학과(2016)
- ▲임채현 경제학과(2016)
- ▲양윤주 언론정보학과(2016)
- ▲박지영 언론정보학과(2016)
- ▲주현용 지리학과(2015)
- ▲장소영 호텔경영학과(2016)
- ▲고나원 경영학과(2016)